

아픈시대, 세상 향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애너하임 소재 베데스다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공개 강좌 개최



베데스다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공개 강좌에서 강의하는 진유철 목사 ©기독일보

남가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베데스다대학교(총장 김판호 박사)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와 장한업 목사(대만 타이페이순복음교회)를 강사로 목회학 박사과정 공개강좌를 열었다.

베데스다대학교 채플에서 진행된 공개강좌에서 두 명의 강사들은 오순절 신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본질을 확인했다. 두 강사들은 각자의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회복을 향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의미, 선교적 교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첫날 "오순절 신학적 입장에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진유철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강조하면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 갈 것을 당부했다.

진 목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심으

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초대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기쁨과 감격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질병의 어려움에 아파하고, 근심과 염려, 죄악의 유혹들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덧입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이어 "그동안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과 편리한 시설, 효과적인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선교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건물 밖으로 나아가 말과 삶으로 복음

을 전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과 예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 강좌에는 지역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강사들의 생생한 목회 경험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고 호평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오순절 신학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실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신앙적 삶의 동반을 가져왔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보다 신앙인들의 영적 공동체로 정의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르심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지칭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일이 '선교'에 집중되어 있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

김동욱 기자

동유럽·중앙아시아 연합감리교회, UMC 탈퇴 수순

'동성에 옹호' 규칙 변경 부결...4개 연회, 자치단체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해외지역 연회가 미국연합감리교단(UMC)을 떠나기로 투표하면서 탈퇴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북유럽 및 유라시아 중앙연회 대표단은 지난 주 온라인 회의 투표에서 찬성 40표 대 반대 20표로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을 결의했다.

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연회는 중앙 러시아, 북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 극동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남 러시아 임시연회의 지역 기구가 자치단체가 되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에 걸쳐 총 66개의 교회가 속해 있는 네 개의 연회는 모두 에두아르트 케가이 감독이 이끌고 있다.

또 대의원들은 해외지역 연회 내의 지역 기구가 동성 결혼에 대한 축복과, 공개적 동성애자의 사제 서품을 허용하는 규칙 변경 제안을 부결시켰다.

크리스천 알스테드 노르딕 발트 지역 감독은 UM 뉴스에 "연회의 모든 회원들이 반드시 같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인 결정은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2022년 UMC 불가리아-루마니아 임시연회가 UMC를 떠나 세계감리교단(GMC)에 가입하기로 투표했다. 또 일부 교회들은 지역 연회가 UMC 탈퇴를 결의한 투표 결과를 거부하자,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에는 교단 탈퇴를 원하는 38개 연합감리교회가 UMC 볼티모어-워싱턴 지역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교회들은 지난 주 메릴랜드 순회 법원에 교회 건물과 재산이 "UMC의 이익을 위한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저당 잡혀 있다. (연회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장을 제출했다.

UMC는 최근 수년간, 동성애는 "기독교가

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공식 장정의 입장과 규칙을 두고 격론을 벌여 왔다. 2020년 1월, 교단 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지도부는 규칙 변경에 반대하는 보수 교회들을 위한 새 교단의 창립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로 알려진 이 계획은 2020년 총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총회는 2024년으로 연기됐다. 결국 지난해 5월 1일, 보수 성향의 세계감리교회(GMC)가 UMC의 대안으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이 교단에는 UMC를 탈퇴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합류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할렐루야! 예수부활하셨네!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강사: 정해진 목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11:25-26)

일시 2023년 4월 9일(주일) 오전 6시
장소 남가주 명성교회 (정해진 목사 시무)
3054 W. 8th St. #204 LA, CA 90005
강사 정해진 목사(제33대 증경회장)
문의 총무 김창영 목사 T.(818)399-2692



제5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최영봉 목사

남가주 중보기도팀, 미국 부흥과 영적 대각성 위해 기도

제3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 열려

제3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지난 22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 모인 90여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은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붙들고 미국과 남가주의 부흥 및 영적 대각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에서 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 사 무총장 강태광 목사는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감동과 함께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대해 보고했다.

강태광 목사는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의 성령강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은



감사한인교회에서 진행된 제3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

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에즈베리 부흥의 현상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

어 부흥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미국과 남가주, 전세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시작된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는 2개월 마다 정기 기도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남가주 부흥순례 순례 기도회로 모였다.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는 감사한인교회 기도팀(리더 전영숙 전도사), 은혜한인교회 기도팀(전혜숙 목사), 주님세운교회 기도팀(홍신우 목사), 나침반교회 기도팀(민경엽 목사), OC 교협(심상은 목사), 청교도 중보기도팀(강태광 목사),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강순영 목사), CBS중보 기도팀(안현숙 전도사), CMF 중보 기도팀(김철민 장로), Soon Movement(이민규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가주 중보기도회 참여 및 기타 문의는 강순영목사(310 995 3936)와 강태광목사(323 578 7933)에게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16일 임시총회 열고 최영봉 목사 회장으로 선출

“교협 정상화, 위상 정립과 젊어지는 교협 추구할 것”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16일(목)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영봉 수석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창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심진구 목사가 기도한 이후 정완기 증경회장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본문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는 류당열 목사의 축도로 마쳐졌다.

2부 회의에서는 최영봉 목사 사회로 이소일 목사가 기도하고 안건토의가 있었다. 두 가지 안건 가운데 첫번째는 신승훈 회장이 여러 개인사정과 바쁜 교회 일정으로 사임을 표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번째는 공석이 된 회장직을 수행할 후보로 수석 부회장인 최영봉 목사가 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임시총회

장일치로 선출됐다. 이후 정관개정을 가결하고 김정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무리 됐다.

제 5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영봉 목사는 “교협을 정상화 시키고 위상을 정립하며, 젊어지는 교협을 추구하겠다. 교계 연합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벤추라카운티 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드린다

부활주일 오전 6시,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에서

벤추라카운티 교회협의회(회장 이요셉 목사)에서 부활절을 맞아 9일(주일) 오전 6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벤추

라카운티 교회협의회에는 현재 11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장소는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담임 이요셉 목사)이며 주소는 2630-A Townsgate Rd. Westlake Village, CA 91361이다.

문의는 626-513-6556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 USC 대학 모의유엔 대회에서 뜻깊은 성과



©2023 SCMUN 에 참가한 KAC MUN 학생들 사진

3년만에 열린 대면 대회에서 2개 상 수상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대학교가 주최한 SCMUN 모의유엔대회에 참가, 2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SCMUN 대회에는 약 8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실제 유엔총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20명의 KAC MUN 학생들은 UN 회원국 국가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각 각 자신이 관심있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참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결의안을 작성했다. 3년만에 대면으로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온라인 대회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유엔환경계획(UNEP) 위원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앤젤 송(Angel Song)’ 학

생과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체이스 김(Chase Kim)’ 학생은 의제를 두고 토론과 협상을 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KAC MUN 학생들은 민디 이(Mindy Yi) 선생님과 진이 최 (Jeany Choi) 선생님의 지도하에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모의유엔 진행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대회를 준비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Eunice Song) 대표는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참가한 SCMUN 대회에서 KAC MUN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고,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국제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갖추고 미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선 기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2023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불의와, 부정, 절망과 죽음같은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세워가는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미주, 캐나다, 남미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 모든 한인기독교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 2023년 4월 부활주일에 즈음하여 -

대표회장 : 장석민 목사
상임회장 : 나성균 목사
사무총장 : 이제선 목사

뉴욕지역 공동회장 : 황동익 목사
남부지역 공동회장 : 김용현 목사
캐나다지역공동회장 : 임현수 목사

서부지역공동회장 : 진유철 목사
중남부지역공동회장 : 김동욱 목사
남미지역공동회장 : 정치현 목사



미드웨스턴 한국부, 예배학 석사과정 및 교회 미디어 사역자 양성과정 개설

[인터뷰] 미드웨스턴 한국부 박성진 학장

“교회를 위하여”를 핵심 가치로 지역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 온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2023년 가을학기부터 예배학 석사과정(Master of Theological Studies-Worship Ministry)과 “교회 미디어 사역자 양성과정”(Certificate in Church Media Ministry)을 한국어로 개설한다.

신학과 이론, 현장을 겸비한 예배 인도자 양성을 위해 개설된 예배학 석사과정은 기독교 문화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배 사역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를 성경적이며 실제적인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예배학 석사과정은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 도움이 되는 예배학의 신학적 기초 및 음악 이론, 예배 실습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예배 콘텐츠 개발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예배학 석사과정은 신학적 토대를 제공할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현대적인 감각의 탁월한 음악적 실무를 갖출 수 있는 음악 이론과 음악 실기 등 실제적인 찬양과 예배 전공과목(20학점)까지 총 5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 예배 전공과목 20학점은 △예배의 성경적 기초 △예배와 회중 찬양 개론 △예배사역 행정 △예배 인도자 리더십 △민족음악(Ethnomusicology)의 이해 등의 이론과목(14학점)과 △예배팀 운영방법 △찬양인도 테크닉 △예배사역과 매체 활용 △음악실습(6학점)등으로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매우 실제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예배학 석사과정 교수진으로는 어노인팅 미니스트리의 대표인 최요한 교수와 Isaiah 6tyOne 대표 조성민 교수, Worship In Christ 대표 이종현 교수, 교회 음향 전문가인 리빙 사운드의 이재호 실장, 민족음악(Ethnomusicology) 전문가 문지현 교수 등 예배학 사역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어노인팅 미니스트리와 Isaiah 6tyOne과의 MOU를 통해 이들 기관의 “찬양 인도자 학교” “예배 싱어 학교” “예배건반 학교”, 그리고 “워십 리더 커뮤니티”와 “Isaiah 6tyOne 워십 학교(ISOW)”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드웨스턴 석사원에는 FIA 워십의 대표 이동선 전도사와 예수전도단(YWAM) 찬양인도자인 염민규 간사가 현재 재학 중이라 이들 단체와의 상호 협력도 모색 중이다.



미드웨스턴 한국부 박성진 학장 ©기독일보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이를 통해 한국과 미주 한인 교회, 전세계 한인선교지에서 예배학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은 “최근 문화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특별히 찬양과 예배 사역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이 확대되는 시기에 올바른 예배 사역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드웨스턴의 예배학 석사과정이 기존의 한국과 한인 교회 사역의 범위를 넘어 선교지에서도 음악을 통한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서 각 교회의 예배 사역자와 함께 선교지 사역자,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실제적인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배학 석사과정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토론식 수업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교회 미디어 사역자 양성 수료증 과정
사역 현장에 최적화된 실제적 기술 습득
교회 미디어 사역부분 전문인력 배출 기대

교회 미디어 사역자 양성과정은 교회마다 미디어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적인 미디어 사역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교회의 요청에 대한 부응으로 신설됐다.

교회 미디어 사역자 양성과정은 총 10과목, 12학점으로 “교회 미디어 사역 개론”을 비롯해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소셜 미디어 관리 △교회 홈페이지 디자인 및 관리 △교회 음향기술 △비디오 촬영 및 조명 △영상 편집 △예배 실시간 방송 송출 △그래픽 디자인 및 편집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교회 미디어 사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사진은 리빙 사운드의 이재호 대표를 비롯해 교회 미디어에 관한 전문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 과정은 교회 및 선교현장에서 직접 미디어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실무이론 및 기술 습득을 비롯해, 교회 내 미디어 팀 사역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돋보이는 부분은 교회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적 과정을 학점당 50달러의 저렴한 등록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모든 과정을 수료할 경우 “교회 미디어 사역 자격증(Certificate in Church Media Ministry)”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료 후 미드웨스턴 예배학 석사과정에 입학하면 소정의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학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박성진 학장은 “최근 교회미디어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요구되는 만큼,

전문 미디어 사역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회 미디어 사역자 양성 과정을 통해 기술과 영성 그리고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 미디어 사역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본 과정을 학위과정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 미디어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역자 및 평신도들도 많기에, 비용도 저렴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으로 본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교회 미디어 사역에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사역에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드웨스턴은 남침례회(SBC) 산하 여섯 개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74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며 북미의 한국어 학위과정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동욱 기자

2023 동부한인교회협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요한복음 11:25~26)

2023년 4월 9일 5:30AM
아름다운 교회(담임 고승희 목사)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주최: 동부 한인교회협의회
EASTERN KOREAN CHURCH ASSOCIATION

회장: 송재호 목사 부회장: 박선호 목사 회계: 최현규 목사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인도에서의 지상대명령 실천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대표 서사라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해외선교부가 인도 북부 편잡주에서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방과 후 교실, 교회 짓기 프로젝트, 기숙사 짓기 프로젝트, 빈민촌 음식 공급 등을 실천하고 있는 근황이 전해졌다.

◆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자비와 함께 복음을

서사라 목사를 대표로 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세계선교센터는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제자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도 북부지역에서 방과 후 교실을 만들었다. 운영되고 있는 약 60개의 방과 후 교실에는 1반에 30명 씩 약 1,8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교사 월급과 아이들의 간식, 그림성경, 노트와 펜, 칠판, 추운 날씨를 나기 위한 담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 중 하루 30분~1시간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게 돼 있다.

3년 전 처음 방과 후 교실을 시작할 때는 약 200명 정도의 아이들만 크리스천이었지만, 현재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먹이는 과정에 힌두교인이었던 부모들이 전도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그들 대부분이 힌두교인이었으나, 방과 후 교실 시작 2년 만에 2,000명 이상의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며 “주님은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는 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요 4:35)라고 하신다. 인도에서 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큰 방법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 인도에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교회 짓기 프로젝트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인도에 교회 짓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짓기 프로젝트는 교회를 짓고자 하는 현지 교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시작 후 벌써 3번째 교회를 도와주고 있으며,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교회 짓기 프로젝트는 앞으로 100개의 교회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교회 짓기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계속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라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 신학생 키우기와 기숙사 짓기 프로젝트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음식을 공급받은 슬럼가 지역의 과부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아프리카 베냉에서의 2022년 5월 목회자 세미나.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 건축 현장.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인도에서 남녀 신학생 26명을 키우고 있다. 기숙사 짓기 프로젝트는 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남자 기숙사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신학생들은 우리의 꿈나무다. 이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 빈민촌 음식 공급

이뿐만 아니라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슬럼가 지역에 음식을 공급하고 있다. 인도는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계급 사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복음화시키고자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인도에서 천민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모여 사는 슬럼가 지역 8곳을 중점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며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한 지역당 400~500명씩 모여 살기에,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재정이 만만치 않다. 8개 지역을 공급할 때 드는 금액은 약 1천 만원. 그럼에도 상황이 될 때마다 쌀 10kg, 밀가루 5kg, 콩 2kg, 기름 1kg 등을 공급하고 있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다”며 “복음을 전하고 음식 공급을 하니 4000명 중 약 400명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온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대표 서사라 목사는 선교지에서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에는 서사라 목사와 김보겸 선교사는 케냐를 방문해 약 270명의 목회자들과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고, 베냉(아프리카)에서는 약 300명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고, 인도에서는 약 450명의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왔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세미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새로운 결단을 갖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서사라 목사는 올해 2023년에도 해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이다. 세미나 개최 예정 나라는 베트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이다.

더 자세한 선교소식은 네이버 카페에서 볼 수 있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네이버 카페주소는 cafe.naver.com/llwmc다. 김신의 기자



서사라 목사.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Easter Cantata
부활절 칸/타/타

‘라 이루엿다’

이상운 작사 / 백경환 작곡

지휘 : 이영두 장로
반주 : 박지민 전도사
합창 : 크렌셔장로교회 성가대



한현종 목사

- 일시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 문의 : 한현종 담임목사 213-407-1600
조영철 장로 213-332-9511



지휘자 이영두 장로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NCCK 이홍정 총무 사의, 기감 내 ‘탈퇴 여론’ 잠재울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탈퇴해야 한다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내 여론이, NCCK 이홍정 총무가 사의를 표명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수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총무는 기감 연회 감독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NCCK 탈퇴 관련 논의에 대해 총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NCCK 사정을 잘 아는 교계 한 관계자는 이 총무가 연회 감독들에게 편지까지 보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적어도 그가 스스로 이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총무의 이 같은 결단은 기감이 NCCK를 탈퇴하는 것 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봤

다. 이 총무가 소위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 즉, 기감 내 NCCK 탈퇴 여론을 ‘대화’로 수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이 총무가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 건을 다뤘던 지난해 10월 기감 제35회 행정총회에서 만약 이철 감독회장 등이 일종의 ‘신중론’을 펴지 않았다면 그대로 표결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때 분위기가 NCCK 탈퇴가 결정됐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격론 끝에 다음 임법회의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그 사이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연회 감독을 역임한 A목사에 따르면 기감 내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NCCK를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미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기독일보DB

데, 이를 교단의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간신히 누르고 있는 형국이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이 총무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기감 내 탈퇴 여론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NCCK를 사실상 대표하는 이 총무가 실제 사임할 경우 기감 측도 탈퇴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총무 사임만으로 ‘대세’를 막긴 힘들어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A목사는 “교단 내 주로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감이 NCCK를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NCCK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동성애 문제 등에 친화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NCCK 총무가 사임한다고 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교인 적은데다 주로 고령’ 농어촌교회 미래 어둡다

농어촌교회 대부분에서 교인 수가 30명 미만이고, 그들의 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은 교인 수와 높은 연령대로 인해 농어촌교회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농어촌성결협동조합에 의뢰해 지난해 3차에 걸쳐 603개 농어촌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실제 응답한 교

회들의 수는 197곳(33.8%)이라고 한다.

결과에 따르면 출석 인원 30명 미만이 70%(138개 교회), 20명 미만이 55%(110개 교회)였다. 출석 교인의 주 연령대는 70대 이상 42.6%(144개 교회), 60대 30.5%(103개 교회)였다.

목회자의 나이도 높은 편이었다. 현재 농어촌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50대가 52%(101명), 60대 이상 37%(74명)였다. 전

체적으로 목회자의 90% 이상이 경력 11년 이상의 50~60대 목회자였다고 한다.

응답자들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교인 감소’(39.5%, 138명), ‘농촌지역 사회의 붕괴’(29.5%, 103명), ‘열악한 교회 재정’(22%, 76명) 등의 순이었다.

연간 결산 금액은 1,000~2,000만 원인 교회가 46곳(2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00만 원~1억 원이 38곳(19.3%), 1,000

만 원 미만 32곳(16.2%), 1억 원 이상 29곳(14.7%), 2,000~3,000만 원 27곳(13.7%), 3,000~5,000천만 원 24곳(12.2%) 순이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68.5%(135개 교회)는 월사례비가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50.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재정적 지원’은 26.6%였다.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51%), 장로(14%), 집사(10.9%) 순이었다.

김진영 기자

“정명석에 엄정한 심판을...사회에서 완전 격리해야”

5개 언론단체, 23일 성명 통해 촉구

5개 언론단체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교주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과 사회에서의 완전 격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이 성명은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한국입법기자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명석 씨 본인과 그를 둘러싼 이들의 범죄무마 과정이 현재 진행형이란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십 년간 확장해온 사이버 종교의 폐단을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1980년경부터 포교활동을 시작한 정명석 교주는 여성 신도



지난해 3월 16일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2000년 경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 2003년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인텔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고, 결국 2007년 5월 16일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2009년 4월 23일 정명석은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단체들은 “정명석 씨의 추악한 성집착은 홍콩 출신 A씨의 증언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1년 18살의 나이에 홍콩에서 JMS에 포교된 A씨는, 정명석 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4년 한국으로 와서 2년여간 신도들과 지냈다. 사

진을 교도소에 보내며 정명석 씨의 눈에 띄자 A씨는 그의 부름을 받고 면회를 하기가 시작했다. 2018년 정 씨가 출소하자 A씨는 충남 금산에 위치한 JMS 수련원에서 2021년 겨울까지 지내는데 이 기간 동안 정 씨에게 상습적으로 10여 차례에 이르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JMS 교리나 정 씨의 행동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으며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A씨는 그의 추행과 성폭행에 좌절했다. 이후 지인의 조언에 따라 정신이 든 A씨는 정 씨의 성폭행 증거를 녹음하여 세상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며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의 눈물 어린 증언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정명석과 JMS의 실체는 더 이상 가리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명석 교주 및 그의 조력자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리시길 바란다”며 JMS 정명석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美 법원, UMC 연회 고발한 교회 30여곳 소송 기각

서부노스캐롤라이나 연회 “탈퇴 교회가 비용 지불해야”

미국 고등법원이 연합감리교회(UMC)와 지역 연회 및 감독을 고소한 30개가 넘는 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2년 11월, 38개 교회로 구성된 UMC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와 이사회 및 케네스 H. 카터 감독(플로리다 연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고등법원의 리처드 L. 도튼 판사는 20일 구두 판결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연회의 신청을 승인했다.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회와 국가의 사법적 분리를 지지하는 판결, 특히 연합감리교단 소속 교회 연회의 판결 절차에 따라 이미 해결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8개 교회는 아이어델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회가 “재산에 대한 신탁을 집행함으로써, 교회 건물과 재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장은 “이러한 입장은 UMC가 지역 교회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회 재산을 해체하거나 보유하도록 허용한 수십 년 동안의 방식과 관행에 배치된다”고 했다.

소송 당시 38개 교회가 이름을 올렸지만, 그중 마린은 프로비던스 연합감리교회와 하

코리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지난 20일 청문회와 구두 판결 전에 소송에서 탈퇴했다.

탈퇴 교회를 대표하는 ‘전국생명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의 데이비드 김스 3세는 지난 2월 CP에 “우리는 상황과 관련된 형법법상의 권리를 살피고, 교회가 옳다는 것을 믿는다”고 밝

혔다.

그는 카터 감독에 대해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대적 역량을 갖고 있고, 그가 동료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개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연회는 논의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터 감독은 지난해 11월 서한을 통해 2019년 41개 교회가 지역 기구의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탈퇴했다고 언급했다.

2019년 UMC 총회 특별회의에서 대의원들은 UMC 장정의 규칙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이 조항은 교회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단의 지속적인 논쟁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거나, 성윤리에 관한 장정의 변경에 반대할 경우, UMC에서 탈퇴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연회와 구속력 있는 탈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탈퇴 전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분담금과 추가 12개월분 분담금과 함께, 재산 이전 및 법적 업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유진 기자

美 목회자 절반만이 “소명에 매우 만족”

바나 그룹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의 절반만이 자신의 소명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목회자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연구는 2022년 9월 6일부터 16일까지 584명의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2%만이 “목사로서의 소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목회자의 비율은 72%의 목회자가 “매우 만족한다”고 밝힌 2015년 이후 20%포인트 떨어졌다. 바나 그룹의 연구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불만족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사회적 격변, 예배 제한으로 이어진 지속적인 폐쇄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의 3분의 2(67%)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현재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매우 만족한다”고 느끼는 목회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 2015년 53%에서 2020년 47%, 2022년 38%로 감소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소명에 대해 더 확신이 있다”고 답한 수치도 2020년 35%로 떨어졌고 2022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인구 통계학적 하위 그룹별로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개신교 원로 목사의 수가 감소한 것은 젊은 목회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미만의 목회자 중 35%만이 2022년 소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대다수(52%)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다. 11%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너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5세 이상 응답자의 58%는 자신의 직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37%는 “다소 만족”한다고 답했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13%)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2%)는 응답자는 같은 대답을 한 젊은 목회자 비율과 비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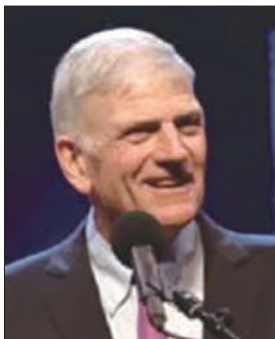
45세 미만 목회자의 3분의 2(66%)는 자신의 부르심을 “심각하게 의심”한 적이 있는 반면, 31%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나이든 목회자 중 절반 이상(51%)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고 45%는 그렇지 않았다.

이 연구는 또한 여성 목회자와 남성 목회자 간의 만족도 차이에 주목했다. 여성 목회자(25%)는 남성 목회자(12%)보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 “자신감이 덜하다”고 생각했다. 남성(35%)과 여성 목회자(33%)가 대략 비슷한 비율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자신감이 수년에 걸쳐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기소 위기’ 트럼프 위해 기도 요청

“그의 복귀 가능성 두려워한 워싱턴과 좌파의 공격”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 빌리그레함 복음주의협회(BGEA)

그레함전도협회(BGEA) 대표인 그레함 목사는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가 향하는 곳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워싱턴과 전국의 좌파는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를 너무 편입증적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레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언론과 좌파는 지난 선거를 조작했고,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밤마다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린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그의 대선 재출마를 막아줄 것을 바라며 그를 체포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는 확실히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했다.

그레함은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트럼프) 위에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닌,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함 목사의 SNS 게시물은 트럼프가 21일 체포될 것이라고 선언한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대한 논평에 이어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날 맨해튼 지방 검사실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둔 몇 주 동안 포르노 배우 스톰미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선거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의 위협이 커졌다.

맨해튼지검이 지난 1월 말 구성한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주장을 폭로하려던 스톰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왔다.

당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코언의 변호인이었던 로버트 코스텔로

가 최근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고, 대니얼스도 원격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다른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폭로된 오래된 동화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티क्स(RealClearPolitics)가 22일 현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43%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9%로 뒤를 이었다. 다른 모든 잠재적 후보자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트럼프 측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그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가 ‘음모론’의 희생자이며 맨해튼 앨빈 브래그(Alvin Bragg) 지역구 검사는 사건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양측의 법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지불이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지불이 이뤄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직 후보였다”고 했다.

또 “뉴욕 지역구 검사는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기소할 권한이 없다. 문제의 혐의는 거의 7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뉴욕 DA 사무실은 그들의 전례 없는 공격에서 시효를 피하려고 하점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예수 혁명’ 그렉 로리 “현 시대가 들어야 할 참된 복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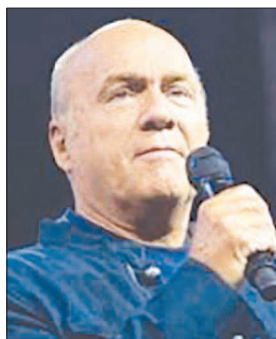
CP 칼럼서 “정치적 올바름에 타협 말고 오직 예수 선포해야”

미국 대형교회 목회자인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대부분의 미국인은 아마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담임목사이며, 매년 대형 전도집회인 ‘소칼 하베스트’(SoCal Harest)를 개최하고 있다.

로리 목사는 칼럼에서 “복음에 관한 한 나쁜 소식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누구든지 모두 죄를 지었다”며 “그러나 보석상이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어두운 벨벳 배경에 아름다운 반지나 목걸이를 진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하시므로서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기로 하셨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완전한 연약함과 비참한 상태를 완화시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선물을 더욱 감사할 수 있다(롬 5:6-8).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배경으로 구원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라”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그렉 로리 목사. ©하비스트 미니스트리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격이 없기에 주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로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갈 2:20)”라는 바울의 인격화시키는 말씀을 나는 애정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는 죄 많은 인류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유일한 자격을 갖추셨다.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온갖 일을 했고, 그분께 다가가는 데 실패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요 14:6)”라고 했다.

부드럽게 처리하는 이런 식의 말은 유혹적이다. “당신만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을 선택했고요. 내가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라는 식”이라며 “하지만 괜찮지 않다. 전혀. 잠언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고 분명히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간극을 메우고 우리 대신하여 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뿐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는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에 대해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1:16)”라고 했다.

끝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순한 메시지 속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면서 “복음의 단순함을 부끄러워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저 선포하라. 그런 다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라”고 당부했다. 강혜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토요일예배 오전 10:0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목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일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연구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주일(온라인) 새벽기도 주일예배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크라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모임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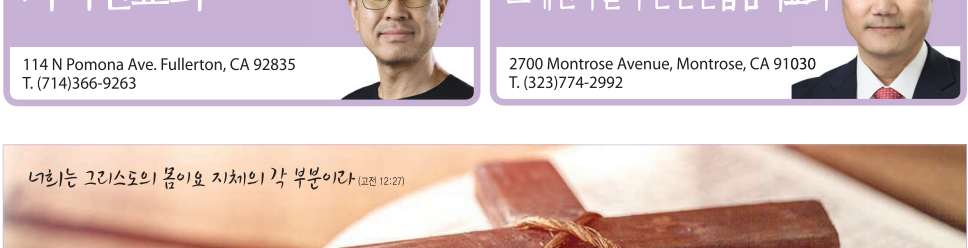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충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뎀주일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명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주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월요일) 오전 6시
3부예배(주세대에) 오전 11:30 (토-일) - 현명성경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주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육과 이면2세대를 책임지며, 이면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 초등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한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gwgm.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v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팬데믹 이후 재정적 어려움 대비한 美 교회 27%→32% 증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더 많은 교회들이 지난 2016년보다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라이프웨이가 실시한 2022년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추출됐으며 표본오차는 +3.2%다. 이 결과는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신교 목사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와 비교했다.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몇 주분인지 알고 있는 목회자의 44%는 16주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2016년 50%에서 감소한 수치다.

현금 준비금이 7주 이하라고 답한 목회자의 비율은 2016년 26%에서 2022년 20%로 감소했고, 교회에 현금 준비금이 16주-51주라고 답한 목회자의 수는 2016년 27%에서 2022년에는 32%로 증가했다.

목회자의 거의 4분의 1(24%)이 자신의 교회가 52주 이상의 현금 보유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2016년(23%)과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 전무이사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은 성명을 통해 “어려움이 조직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재무 리더들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지출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말했다.

맥코넬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조치를 언급하며 “지난 2020년 일부 교

회에서 몇 주 동안 현금 유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재정 불황과 같은 어려움은 교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현금 준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개선되기는 하지만 2023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은행에 너무 적은 돈을 저축한 교회가 여전히 많다”라고 했다.

2022년 설문조사에서도 목회자의 거의 3분의 1(31%)이 교회의 현금 보유고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52%)과 히스패닉 목회자(35%)는 백인 목회자(17%)보다 7주 이하의 현금 보유고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감리교(30%), 오순절(25%), 침례교(23%) 목회자들은 그들의 교회에 “0주에서 7주 사이”의 현금 준비금이 있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더 컸다. 무교파 목회자(34%)와 기독교/그리스도의 교회(34%)는 자신의 교회에 52주 이상의 현금 보유고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100-249명(20%) 및 250명 이상(25%) 출석 교회의 목회자는 0-49명 출석 교회(12%)의 목회자보다 “16주에서 25주 사이”의 현금 준비금이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목회자의 절반 이상(58%)은 자신의 교회가 지난 2년 이내에 전체 재정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47%는 작년에 교회가 재정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맥코넬은 “일부 주법은 특정 크기의 비영리 단체가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는 선택권이 있다”라며 “많은 교회가 재정 절차를 준수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 검토를 선호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니제르 30년 사역’ 美 선교사, 납치 6년 반 만에 석방돼



제프 우드케 선교사의 아들 로버트, 아내 엘스, 제프 선교사, 아들 매튜(왼쪽부터 순서대로). ©아카타제일침례교회 페이스북

니제르에서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캘리포니아 선교사와 프랑스로 언론인이 석방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카타제일침례교회(Arcata First Baptist Church)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 북에 “2016년 10월 납치된 제프리 우드케(Jeffery Woodke) 선교사가 이번 달 석방됐다”고 밝혔다. 우드케 선교사는 YWAM의 구호 활동가로 봉사해 왔다.

교회 측은 “제프리 선교사와 가족들이 새로 찾은 자유와 그 앞에 놓인 많은 도전을 헤쳐나가는 동안 계속 기도로 함께 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드케 선교사와 프랑스로 언론인 올리비에 뒤부아의 석방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공식 트위터에 “기쁘다”고 밝혔다.

설리반 보좌관은 “6년 넘게 인질로 잡혀 있던 우드케 선교사가 석방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이 들었다. 미국은 우드케 선교사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니제르 정부에 감사하다. 그의 자유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한 많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프랑스 언론인 뒤부아는 2021년 4월 같은 단체에 의해 납치됐다.

우드케 선교사는 아발락(Abalak)에 있는 그의 자택에 들이닥친 무장 세력에 의

해 납치됐다. 당시 무장세력은 경비원을 살해하고 그를 납치했다. 그는 대략 30년 동안 니제르를 오가며 선교했고, 해당 지역에 우물과 학교를 건설하는 사역을 했다. 또 아프리카제일침례교회(Arcata First Baptist Church)에서 운영 중인 레드우드코스트선교학교(Redwood Coast School of Missions)에서 강연했다.

교회 측은 “우드케 선교사는 훔볼트주립대학교 학생 시절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친, 아카타제일침례교회 출신의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USA투데이는 “우드케 선교사는 이슬람국가(IS)의 서아프리카지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아프리카의 광대한 사헬 지역에 있었고 알카에다의 서아프리카지부인 JNIM에 납치됐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석방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정부 관리는 USA투데이에 “몸값은 지불하지 않았고, 수 년간 (이들의 석방을) 지지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에 따르면, 니제르는 다수의 이슬람 테러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다. 니제르는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28위를 기록했다.

니제르가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지난 반년 동안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강혜진 기자

“인도네시아 교회, 10년 안에 크게 성장할 것”



성회 참석자들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현지 오순절 교회 100주년 성회서 설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22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에 위치한 마겔랑 스포츠아레나에서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회(GPDI) 100주년 기념 성회’에서 설교했다.

이목사는 “향후 10년 안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10배 이상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교회가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 세계 교회가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3년 자바섬에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침례를 베푼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성회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 등 전 세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특히 자카르타 말랑과 자바 등 전국에 산재한 1천여 곳의 교회 성도들이 길게는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참석한 이날 성회는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린 최대 규모의 기독교 행사로 기록됐다.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 창립 100주년 성회를 준비해 온 요하네스 프락토와 소목사는 “그동안 식어버린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오늘 이영훈 목사님이 전해주신 강력한 설교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은 현재 1만 7,000여 개 교회와 150만 성도가 소속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10개 오순절 교단들 중 최대 규모다.

김진영 기자

우간다에서 기도회 준비하던 목사 부자, 무슬림에 테러당해



우간다 동부에 위치한 교회가 무슬림들에 의해 파괴된 모습. ©모닝스타뉴스

지난 15일 우간다 동부에 있는 교회 부지에서 철야 기도회를 준비하던 목사 부자 그와 그의 14세 아들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존 발리다와(John Balidawa·35) 목사와 그의 아들 길버트 산자(Gilbert Sanja)는 이날 오후 8시경 마유구(Mayuqe) 지역의 키굴루(Kigulu)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발리다와 목사와 그의 아들은 에벤에셀크리스천센터(Ebenezer Christian Center)에서 철야 기도회를 준비하던 중 교회 지붕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6명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쳐들어왔고, 셰이크 사피 무카마라는 인물은 이 부자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폭도는 밖에서 감시했다고 한다.

발리다와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들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자, 셰이크와 다른 두 명이 날 때리기 시작했고 바닥으로 밀친 다음 배를 밟았다. 다른 이들은 통곡하며 도와달라고 울기 시작한 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와 내 아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의식을 잃었던 발리다와 목사는 블루다(Buluuba)의 한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깨어났고, 병상 곁에 있던 제랄드 카토 와카비(Gerald Kato Wakabi·39) 담임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교회 건물과 70개 이상의 의자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와카비 목사는 “발리다와 목사는 다리 위 손 뼈가 부러졌으며 얼굴이 붓고 내장과 위장에도 부상을 입었다. 그의 아들은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오른손 뼈가 부러졌으며 얼굴이 부었다”고 그의 상태를 전했다.

이번에 이들을 공격한 무카마는 2022년 8월 와카비 목사에게 “우리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니 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와카비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많은 성도들을 두렵게 했다”며 “영적으로 회복되리라는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했다.

이 교회는 2022년 1월에 시작해 현재 12명의 이슬람 개종자를 포함해 47명이 참석하고 있다. 와카비 목사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교인들은 마을 모스크에서 약 30km(19마일) 떨어진 곳에 다른 예배 장소를 찾고 있다.

와카비 목사는 “그곳에 정착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우선순위는 기독교인,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공격은 모닝스타뉴스가 전한 우간다 기독교인에 대한 수많은 박해 사례 중 최근의 것이다.

우간다의 헌법과 기타 법률은 자신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지지하며, 개종할 권리를 포함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무슬림은 우간다 인구의 12% 이하로, 동부에 집중돼 있다.

강해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일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에교회
최혁 담임목사
OC재콜, 벨리재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사백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저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가디나선교교회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유증고부예배 오전 8:40

대홍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둘로스교회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은혜로교회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전 9:30, EM성경일회 오후 1:00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9청년예배 오후 2:00, 사백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세리토스선교교회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국교회/LA구국재단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글)예배 오후 2:00, 사백기도회 5:30(월-금) 6:00(토)

남가주동신교회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주님의빛교회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늘푸른선교교회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다우니제일교회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림혁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천보기도 오전 9:00(목)

베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함께 걷는교회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ia@gmail.com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겻세마네 기도

한편의 그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빛의 화가로 불리는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를 통해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혁신적인 영향을 준 네덜란드 출신인 헨리 나우웬(Henri Jozef Machiel Nouwen, 1932-1996)을 변화시킨 일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지내며 인생의 가장 깊은 협곡에 빠져있던 렘브란트는 1669년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 내면을 ‘탕자의 귀향’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1983년 나우웬이 프랑스 ‘토르졸리’라는 작은 마을에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라르쉬(L' Larch) 에 머물던 중 문득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을 그가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장의 포스터 앞에서 나우웬은 눈을 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겻세마네의 기도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 저자가 공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중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은 마태나 마가 저자의 기록에 비해 비교적 온순하게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마태와 마가 저자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라는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아들과 같은 불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아버지께 주권을 맡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모습 속에서 바로 나우웬이 말한대로 예수님의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의 양면성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편의 그림이 이처럼 많은 메시지를 주듯 하나의 짧은 음악이 드라마로 펼쳐지며 사건 현장을 사실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보게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됩니다. 조혜영 작곡가가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이 감람산에서의 모습을 음악으로 잘 스케치하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긴박했던 겻세마네 동산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는 듯 비추어 줍니다. 질투 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 단조로 서주를 시작 합니다. 이어 먼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유니슨으로 비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엿박자를 사용하여 맑이 핏방울 되듯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어 유니슨으로 대조를 사용하여 평화로운 어린양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두 마음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는 “나의 아버지여 이 고통의 쓴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큰아들의 모습과같이 불평이 섞인 항변 같은 모습을 그려냅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아들이 주는 고백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며 죽음으로 온 세상 구원할 어린양이 되겠다는 저항 속에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을 음악으로 그려냅니다.

겻세마네 기도의 장면은 하나님인 예수께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펼쳐신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통해 그 십자가 고통, 그리고 돌아가심을 감사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신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나우웬이 렘브란트가 그린 한쪽의 그림을 통해 모든 삶이 바뀐 것을 보여주듯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의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하나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Herbert Gorge 웰스의 “무덤”



강태광 목사
월드뷰어 USA

인도에 매우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비를 잃은 왕은 너무도 슬퍼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몇 일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덤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왕은 왕비의 무덤 곁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워 왕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석수와 조각가를 동원해서 무덤의 동쪽에 자신을 상징하는 젊은 용사의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의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왕비의 무덤다운 품위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비의 무덤가를 돌아보는데 왕의 마음은 여전히 아쉽고 허전하였습니다. 왕은 왕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멋진 별장이라도 지어 주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 왕은 무덤의 남쪽에 호화로운 별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렇게 남쪽, 서쪽, 동쪽을 가꾸고 나니 북쪽이 비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북쪽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왕비의 무덤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쪽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용사의 동상, 서쪽에는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남쪽에는 재력을 과시하는 호화로운 별장, 북쪽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이 서로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제야 자신의 왕비에게 빛을 갠 느낌이었습다. 왕은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를 위한 특별한 공원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공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해외 사절단이 오면 왕은 그들을 이끌고 와서 자신의 왕비를 위해 만든 이 특별한 공원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궁궐을 거닐며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원을 보면서 왕은 흡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거슬리는

한 대학에서 과학 공부와 과학교사로 보낸 세월이 훗날 그가 과학공상 소설을 쓰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웰스는 1893년부터 단편소설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타임머신을 발표해 큰 명성을 얻습니다. 이후 ‘모로 박사의 섬’, ‘투명인간’, ‘우주 전쟁’ 등의 과학 공상소설들을 발표하며 성공적인 작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약 100편 정도의 과학 공상 소설을 썼습니다. 아울러 웰스는 문화 비평가로 정치,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렬하게 풍자하는 작품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웰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324쪽에 이르는 ‘세계사 대개 (The Outline of History)’(전 3권)를 펴냈습니다. 그리고 1922년 더 간결하고 쉬운 ‘세계사 산책 (A Short History of the World)’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도 세계사 입문 추천 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웰스는 현실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인권 문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인권을 다루는 다수의 단편을 남겼습니다. 그는 1946년 런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HG 웰스 (Herbert Gorge Wells)는 인도 민화를 각색하여 단편소설 ‘무덤’을 완성했습니다. 소설에서 왕이 왕비의 무덤 주변을 가꾼 것은 왕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왕비의 무덤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HG 웰스는 비평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무섭게 변질되어 가는 당시 교회와 신학의 타락과 모순을 질타했습니다.

웰스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이 예수님을 몰아내는 비신화화 (demythologization)작업을 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아울러 예수 없는 신학이 만든 예수 없는 교회의 초라한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물론 예수 없는 교회는 예수 없는 신자를 양산하여 비극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학에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키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TRACS 승인
- 기독교교육의 리더십(CEO)인, 상담학박사, 석사학사, ESO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동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임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시역학철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회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연락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1차 완판 감사!!

“ 뜨거운 관심으로 1차 물량 완판 ”

“ 2차 물량 판매 개시 ”

100세 시대!!

“ 이제 굽은등을 펴세요!! ”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볼륨 UP

100% 국내생산

\$45 \$40

지지대 없이도 탄성 있게 자세를 잡아주는 등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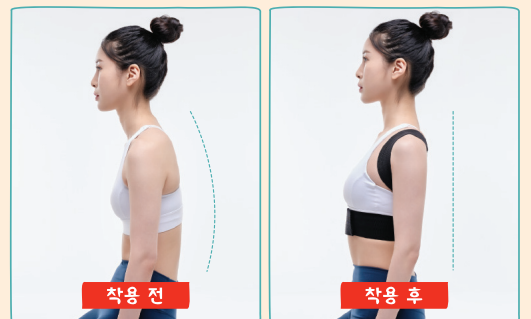


완판감사! 추가선물

3월 31일 까지

탈부착 이동이 가능한 폭신한 어깨패드 (10볼이상)

어깨패드는 거드랑이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추가 구성품으로 피부가 예민해 밴드가 조이는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함께 구입하여 같이 착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리비스타 멀티 발목 보호대 하나로 다양하게

1 건설 협회 추천 최우수 제품 선정

BEST SELLER

리비스타 압박밴드 시리즈

- 발목
- 손목
- 종아리

건설현장/요식업/ 컴퓨터 사용시/골프/테니스등



빈틈없이 꼭 잡아!

리비스타 손목 보호대 걸고 감으면 끝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루종일 내 손목을 지키는 손목지킴이 1mm 얇고 가벼움, 손목에 착~ 밀착!!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 항산화 · 에너지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비타민C사실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고려은단 비타민C는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를 사용합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 딜러 정품라벨을 확인하세요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비타민 먹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Ch 기독샵

KIDOK SHOP

교회, 단체 행사선물 상담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www.kidokshop.com

213-235-6663

도소매 타주 판매점 모집 문의
올코샵 3055W. 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강준민 칼럼

고난 중에도 꿈꾸는 사람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꿈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행 2:17).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속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꿈속에 미래가 담겨 있고, 그의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꿈을 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또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꿈의 능력은 꿈꾸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의 능력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꿈의 능력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꿈은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둘째, 꿈은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배운 교육과 좋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나쁜 경험들과 상처 때문에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꿈이 좋은 이유는 꿈을 꿀 때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과거라는 항구를 떠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셋째, 꿈은 나이와 환경과 신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타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그의 나이 17세였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신분이나 학력이나 인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모든 악조건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넷째, 꿈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꿈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작은 꿈을 꾸면 작은 고난을, 큰 꿈을 꾸면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작은 꿈은 작은 문제를, 큰 꿈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강렬한 꿈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꿈은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만듭니다. 꿈꾸는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통해 비상합니다. 독수리가 폭풍우를 타고 비상하는 것처럼, 꿈꾸는 사람은 고난의 폭

풍우를 타고 비상합니다.

다섯째, 꿈은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큰 꿈과 위대한 꿈은 하루아침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때가 잘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성취하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술 말은 관원과 떡 말은 관원들을 잘 섬김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언제 우리 가슴에 잉태될까요? 저의 경우는 좋은 만남, 좋은 책, 그리고 고통스런 사건을 통해 제 가슴에 잉태되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통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꿈을 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험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까닭은 새 꿈을 꾸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꿈을 꾸십시오. 고난 중에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믿는 자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꿈꾸는 자와 믿는 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유철 칼럼

봄 나기와 교회대청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쉴 르나르’ 라는 100여 년 전의 프랑스의 작가는 1894년 자신의 어두운 어린 시절을 담아낸 소설 ‘홍당무’를 통해 유명해졌는데, 그는 최단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뱀, 너무 길다.”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시가 있는데, 제목 ‘봄은’, 내용은 “또 온다.” 입니다.

봄은
또 온다.

짧은 비유와 압축일지라도 섬광과 같고 번개와 같은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땅에 파릇파릇 새싹이 솟아나는 봄은 또 옵니다.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올라가며 메마르고 먼지 나는 광야 같던 대지가 푸르름으로 뒤덮인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케 되고 눈이 호강하지 않습니까? 긴 팬데믹의 여파로 움츠러들고, 홍수와 한파, 재난과 사고 등으로 유달리 춥고 어두웠던 겨울이라 할지라도 생기와 활력을 주는 봄은 반드시 또 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도 봄은 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참사의 현장에도 봄은 옵니다.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되살아나는 봄은 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며,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소망 찬 ‘봄 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

엘에서는 봄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파종 후 싹이 트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풍년을 맞이하게 합니다.(욥29:23, 스10:1)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신11:14) 봄비가 내리면 밀과 보리가 알곡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은 다 봄의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봄에 허락하신 하나님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일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의 봄은 잠자기에 좋은 계절이 아니라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를 일컫

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깨어나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기도의 동산에서 함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와 세상 저항이 아무리 거세어도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4월1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소망차고 힘찬 약동의 ‘봄 나기’를 위해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나 하나 좁이야!” 하면서 움츠러들려는 추운 겨울의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봄을 맞이하는 씩씩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겨울잠과 같은 흑암의 세계에 갇힌 영혼들을 향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담대하게 순종하므로 어느 때보다 힘차게 약진하는 2023년의 ‘봄 나기’를 이루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213.378.8530/213.674.7476

구봉주 칼럼

신본주의 VS. 인본주의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사회 복음주의(The Social Gospel move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복음주의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발했던 개신교 지식인들의 진보적인 신학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 정의, 범죄, 빈곤, 아동노동, 전쟁 등의 사회적 주제들에 대해 기독교 사상으로 접근하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기독교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회복음주의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권운동이 일어나, 차별당하는 여성들의 권익을 높였고,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바꾸었으며, 인간의 자유할 권리, 평등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들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음주의라는 기독교적 사상이 체계화되기 훨씬 전부터, 기독교적 신앙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존경스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애주의자 슈바이처,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위버포스,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기독교적 이념을 굳건히 세운 링컨 대통령, 기독교적 윤리로 정치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 셀 수 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목회자였던 아버지 카스너 목사에게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카스너 목사님은 동독 서독이 나뉘어 질 때, 비교적 목회활동이 원활하고 살기 좋아 동독의 많은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동독에 남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계와 자녀교육이 만만치가 않았습다.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는 세 자녀들이 기독교를 벗어난 인본주의적 사회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에 카스너 목사님은 늘 자녀들과 신앙과 사회 이념과 문화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를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 사상 가운데 자란 앙겔라라는 과

학자가 되었고, 1990년 동독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에, 동독 출신의 여성 과학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정치인들에 의해 발탁이 되어,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16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총리직을 맡으면서, 원칙에 입각하여, 청렴하고 모범적으로 정치를 해냅니다.

그러나, 사회복음주의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기보다 그들이 옳다고 믿는 사회 정의와 도덕을 신봉합니다.

동성애를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제 두고, 동성애자들이 차별 당한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합법화하고, 심지어 조장해버렸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자들로 인해, 개신교에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독일 신학은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적 신학, 사회주의적 신학이 발전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도덕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고루한 것으로 인식시켜 버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메르켈 총리는 본인은 기독교적 가치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녀는 독일에 100만명의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현재 독일은 이슬람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은 자녀들을 낳지 않

는 반면 무슬림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독일 정부에 자신들의 인권과 종교적 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법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들이 정착한 마을들은 치외법권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위하다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알팍한 선함과 의로움, 왜곡된 도덕과 윤리라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바른 것, 옳은 것, 도덕과 윤리 규범을 외치면서, 정작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는 반응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생활 해야 합니다.

송재호 칼럼

고난의 나이테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원인이 되는 고난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고난이 있는가하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지 모르고 겪게 되는 고난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나무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하이 트마운틴에 있는 브리슬콘소 나무로 최소 5천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는 나이테가 있 어서 나이테 수로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무의 나이테는 단순히 나이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테의 굵기, 간격, 모양새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의 흔적까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기가 부딪친 자연계의 복잡한 환경 조건을 있는 그대로 나이테에 기록하면서 살아 갑니다. 실제로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와 한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나무들은 겉으로 아무리 우람하더라도 나이테를 살펴보면 과거의 흔적을 생생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나무와 같은 고난의 나이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 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연을 안고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 세 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고난이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고난의 나이테를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으로 살아오신 33년 인생에서도 십자가고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고난’이란 단어가 110 번쯤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만 무려 17번 사용되어 고난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때에 핍박이 심하므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라도 참 소망을 갖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7 에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

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의 풀 무릎에 넣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고난의 이유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재되심을 명백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한다(고린도후서 12:9-10)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더 충만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다면 고난은 분명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기쁨’을 발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담임목사 청빙 공고

공고일: 2023년 3월 6일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으로 지난 5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온 교회로서, 400여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며, 신앙공동체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1032 Manchester Rd. St. Louis, MO 63122
http://www.kpcstl.org

자격요건 | Qualifications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M. Div.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
- 목회 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 한국어 설교와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
-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의 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Requirements

- 이력서, 학력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추천서 2장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Website link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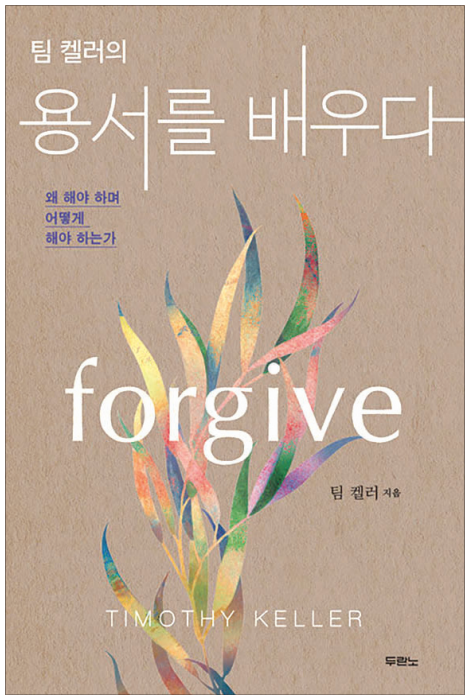
일반사항 | General

- 모든 서류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되면 공고를 즉시 마감합니다.
-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보내실 곳 : apply.kpcstl@gmail.com)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용서가 실종된 시대, 용서를 배우려면

팀 켈러 목사 “죄는 죄이지만... 우리는 용서할 의무만 있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팀 켈러 | 윤종석 역
두란노 | 360쪽

아프고도 찬란한
용서의 길을 배우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 용서!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움직이는 메시지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대는 정말 용서를 배우야 한다. 한때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진 용서는 이제 희귀하고 드물기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미덕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금 뭔가 꼬투리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 무섭게 달려들어 보복과 응징할 권리를 내세우며 양갓음하는 게 당연한 시대, 그럴 때 오히려 쏟아지는 대중의 환호와 지지와 칭송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용서는 그들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야 마땅하나, 실상은 새로운 본성과 싸워 미움과 분노와 비방과 복수로 다시 사로잡아가는 또 다른 본성이(성경이 옛사람이라 부르는 악한 본성이) 용서를 너무도 힘든 막중한 과업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배우야 한다. 용서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제)'를 <용서를 배우다>를 쓴 저자 팀 켈러는 국

내에 두루 알려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저자이자 목사이다. 그는 이 책을 데이비드 폴리스와 D. A. 카슨에게 헌정했다. 용서에 관한 성경적 통찰을 제공하여 이 책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은사 있는 성경 교사이자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실제로 용서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많이 요구하는 주제이다. 성경적 상담학 대가인 폴리스, 뛰어난 성경학자 카슨이 책의 토대를 쌓았다는 사실은 책을 읽어가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그만큼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참고로 360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기 원하는 독자는 부록 1-4를 통해 저자가 사용한 핵심 성경 구절과 용서의 원리,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과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 등을 먼저 볼 수 있다.

저자로서 켈러의 뛰어난 그가 현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예리하게 분석한다는 데 있다. 그는 애플 티비 인기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용서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의견도 잘 찾아서 제시한다.

1부에서 켈러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가 '용서 실종 시대'를 살고 있다고 고발한다. 용서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에 용서의 원천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의 실질적인 예시는 기독교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의 용서는 다른 종교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기독교는 용서가 실종된 인류의 역사 속에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2부에서는 '용서, 왜 해야 하는가', 3부에서는 '용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각각 다룬다.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대가를 십자가에 달하신 아들 예수님께 대신 찾으셨고, 정작 죄를 지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거나 슬쩍 넘어가지 않으셨다. 죄의 심각하고 파괴적인 책임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모두 물게 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희생을 스스로 감수하셨다. 죄인인 우리가 물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라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팀 켈러는 여러 번 교회가 내부적인 범죄를 다룰 때 정의를 말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또 잘못 다뤘는지 지적한다.

죄는 죄다. 죄책감과 책임감과 수치심을 무마하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는 건 용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가해자도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피해자도 용서와 화해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 실패한다.



팀 켈러 목사(뉴욕 리디머장로교회 설립, CTC 이사장).

켈러는 또 죄를 범한 상대가 회개하지 않을 때도 용서할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상대방과 나의 수평적 관계 회복은 회개 없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나는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언제든 회개할 때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용서를 배우다>를 통해 독자가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

해야 할 의무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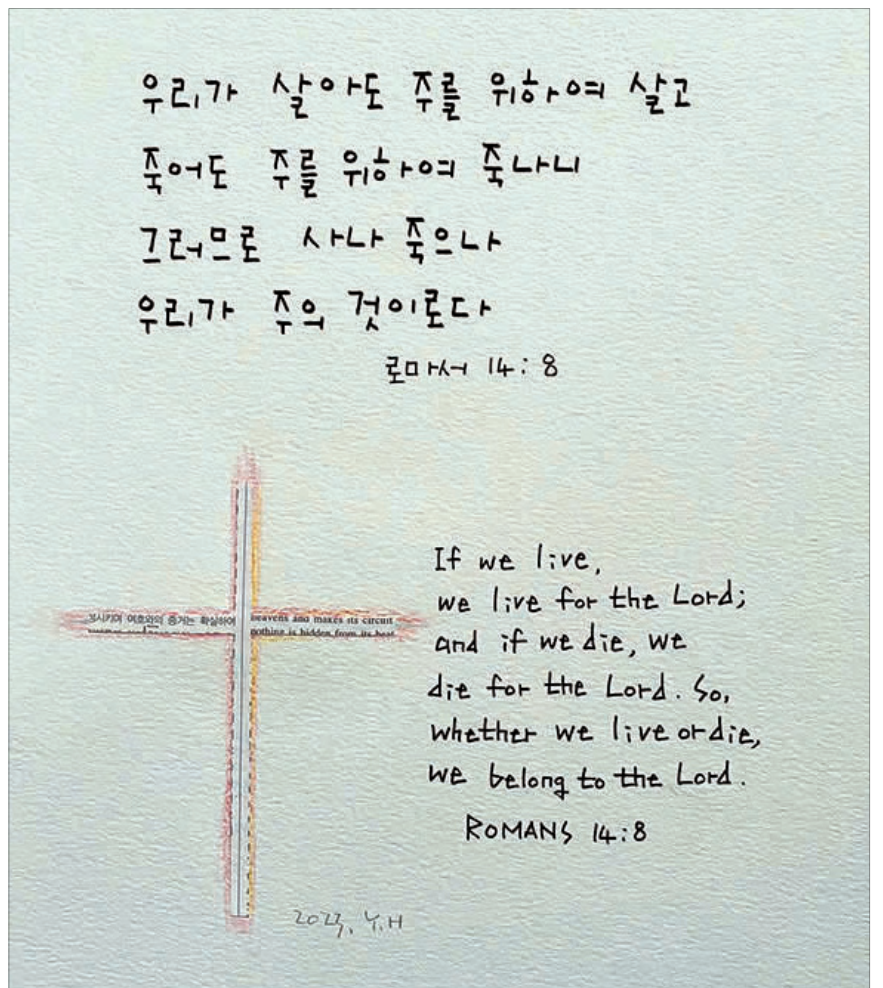
어쩌면 한없이 강압적으로 여겨질 이 명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 없는 냉정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강권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법이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앞으로도 저지를 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안다면, 영원한 용서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안다면, 우리는 1백 데나리온 빛진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실천한 위인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용서는 하나같이 더 큰 용서, 더 위대한 용서, 무한하고 영원한 크기의 자비와 사랑과 희생이 담긴 그 용서를 힘이었다. 같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를 통해 용서를 배우고 실천해 보자.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나는 신이다> (2)

<나는 신이다>: 이단·사이비, 왜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는가

정통 교단, 사이비 집단 대응 부재
대형교회들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
과거 이단 감별사, 자질 결함 심각
교회 판별 및 자정 능력 부재 틈타

◆미디어가 바라보는 이단과 사이비: 교육적 효과가 부족한 이단, 사이비 폭로 프로그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등장한 사이비·이단 종파들의 공통점은 성경에서 영혼의 구원 자라는 개념을 도용해 특정 인물을 신격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신격화된 교주가 사회의 통념과 윤리를 짓밟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점 역시 두드러진 공통점이다.

한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곧 그의 죄성마저 신성으로 탈바꿈하는 촌극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근거없는 성경해석, 몰육과 명예욕과 성욕 등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모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누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는 자아도취와 자기 정당화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주들이 이끄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현혹되어 삶의 파괴를 경험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이단·사이비 교주들의 주장에 현혹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교주들이 구축한 조직의 힘이다. 교주 본인이 주장하면 허황된 소리가 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그 교주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 군중심리에 휘말려 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단에 소속되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중시하는 이들일수록 이단의 유혹에 취약하다.

특히 해당 이단·사이비 종파 구성원 가운데 가문이나 학벌이 좋은 이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공고한 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집단의 그릇된 가르침이 더 큰 흡인력을 갖는다. 이단 종파들이 유독 학벌 좋은 대학생, 연예인, 전문직 종

사자들을 포섭의 타겟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신이다>는 교주들의 비행, 범죄와 그로 인해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피해야 할 이단·사이비 집단을 지목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순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주들의 악독한 행적을 자극적으로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지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속입수를 분별하고 대처하는 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본 다큐멘터리에 명시된 네 개 종교집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유익한 측면이 있지만, 그와 비슷한 다른 문제적 종교집단이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대처법을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사실 이런 대처법을 마련하고 교육시키는 일은 기존 정통 교회들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교계에서 이 임무를 방기한 까닭에 언론과 미디어가 이 임무를 넘겨받았다. MBC·SBS 같은 공영방송에 이어 이제 넷플릭스도 그 대열에 가담한 상황이다.

언론과 미디어는 사실 추적과 요약에는 전문성을 발휘하지만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한 교리적·윤리적 판단에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폭로된 사실들 자체가 별도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언론윤리 때문이기도 하다.

◆교회가 바라보는 이단과 사이비: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통 교회의 교육 및 대응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능력 저하

원래 교회들이 맡았던 이단·사이비 감별 기능이 근래 들어 크게 약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의 이단·사이비 판별 및 예방 기능이 약화된 주원인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성경 가르침에 어긋난 주장과 행위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를 기피하는 '인격' 중시 문화의 득세를 지목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배 중 설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주장과 해석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이들에게 부담감을 준다고 판단한 탓인지, 현재로서는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설교단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독교 언론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나는 신이다>처럼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프로그램이 기독교계 언론에서 제대로 기획·제작된 적이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교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공영방송이나 넷플릭스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역량을 갖췄으면서도, 정작 이 역량을 제대로 활용해본 일이 거의 없는 듯하다.

과거 이단 감별을 주도하던 이들의 자질 또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학문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무자격자들이 특정 교단의 교리를 협소하게 적용해 이단 판정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이단 판정 유예 혹은 취소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일도 서슴치 않는 이들이 등장해, 종래에는 교인들이 개신교계 전체의 이단·사이비 감별 능력에 커다란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다.

결국 교회 내 이단·사이비 집단들에 대한 판별 및 자정 능력이 부재한 틈을 타서 JMS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단체들이 교세를 확장했고, 이 단체들이 자행한 엽기적인 범죄 행각들이 언론에 포착되고 나서야 교계도 뒤

늦게 경각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수준으로 이단·사이비 문제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소규모 개교회들이야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나 정보력이 부족하고 피해 사례를 직접 겪을 가능성도 적지만, 각 교단 중추를 이루는 대형교회들은 이단·사이비 집단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교인들이나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단·사이비 교파에 접촉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 그런데 해당 교회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결국 이단·사이비를 감별하고 경계하는 역할이 언론과 미디어에 넘어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과 미디어는 사실 보도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단·사이비 단체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 역할을 교회와 기독교 언론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미디어에 의한 이단·사이비 단체 폭로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성경과 정통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애초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교의 체계 자체가 이단들의 괴악한 신앙 행태를 조성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전도 활동이 왕성하고 정통과 이단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분별해 가르치던 1990년대와 달리 교회들의 전도 역량도, 이단과 사이비 경계 의지도 약화된 2023년 현재, <나는 신이다> 같은 보도 프로그램이 사회에 일으킨 커다란 반향은 역으로 현 개신교계 전반의 이단, 사이비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나는 신이다>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사이비 집단 JMS의 교주 정명석. ©넷플릭스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MA 주 FEEDING HILLS에 위치한 미국 하나님의 성회(AG)소속 갈보리 교회에서는 은퇴하시는 현 목사님을 이어 후임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1. 자격요건**
 - 경력 : 이민 목회 3년 이상 (부목사 경력 포함)
 - 본 교단 목사, 타 교단 목사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AG)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신분 : 미국 거주에 결격 사항이 없는 분으로 영주권 후원 가능
 - 학력 : M.Div.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 1부
 - 본인 및 사모의 자기 소개서 각1부
 -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 추천서 2부 (응시자가 담임 목사일 경우 교단 및 지방회, 부목사일 경우 담임목사와 그 외 1인) 추천인이 연락처 기재하고 직접 제출
 - 후보 2회분 (현 시무 교회 최근 3개월 이내)
 - 설교동영상 2회분 (현 시무교회 최근 3개월 이내)
 -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함) 1부
- 3.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3년 4월 30일
 - 제출 : email (calvarychurchcalling2023@gmail.com) 또는 우편(P.O.BOX 311, EAST GRANBY, CT 06026)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담임 목사 청빙용으로만 사용되며 청빙완료 후 폐기됩니다.
 -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email(calvarychurchcalling2023@gmail.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교회 청빙위원회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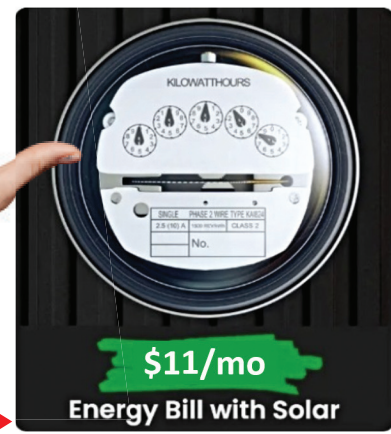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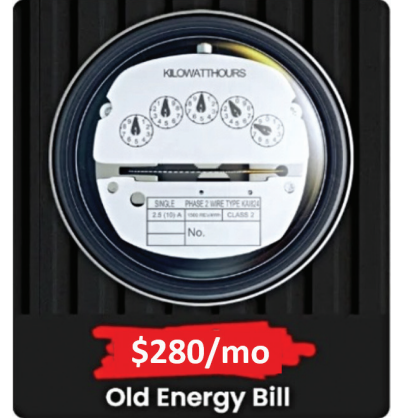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전기세가 11달러?!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70%~8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소개 해 주시면 500불을 드립니다

213-500-8000
714-702-0151

CELLS 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